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순교자 성월, 연중 제24주일
제31권 42호(가해) 2011.9.11

[묵상]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리스도<17세기, 니콜라스 마스, 캔버스에 유채, 런던 내셔널 갤러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
스스로의 변화가 대견스러운 듯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랑스럽게 여쭙니다.
저에게 잘못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일곱 번이나 용서할 마음이 생긴 것을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흠족해 하실 줄 알았던 예수님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유로 들려주신 하느님은
당신께 빚진 이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지만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화를 내시며 용서를 거두십니다.
하느님의 용서는 끝없는 용서가 아니라
조건을 전제로 한 용서입니다.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심은
저희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길 원하심이니
저희가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저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큰 용서를 기억하는 이는
형제를 향한 작은 용서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조건은 저희가 사랑하게 합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예비자 교리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전신자 성경통독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1:00 오전 10:00, 오후 8:00
금요일	병자영성체(1째주) M.E. Sharing(3째주)	오전 10:0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울뜨레아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낮미사 후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박덕기 카타리나, 김봉태 바오로 & 엄고도 마리아, 김중호
특전미사	(생)정한모 마카엘, 민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주 일 낮 미사	(연)조경림 요셉, 김두철 아브라함, 김명술 & 하분학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엄익찬 안토니오, 권순봉 요안나, 이종기 대건 안드레아, 김치곤 바오로, 엄익수 바오로, 유루시아 & 김요한 & 이말지나, 김시형 시릴로, 차유순 안당수녀, 차준수 요셉, 차홍식 베드로, 김재철 & 주정애, 이석종 & 박남길, 정용선 시메온 & 김중균, 정윤 요셉, (생)김풍길 바오로 & 김재희 모니카, 대건회 가정, 안나회 가정, 황학수 마리아, 손데이빗, 이효희 마리아, 송호창 요셉, 정혜경, 남가주 여성제33차 꾸르실로 수강자 & 봉사자, 손창문, 양엄회 회원들 & 도와주신분들, 문밖티스타수녀, 이장환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27,30-28,7

화답송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복음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끝까지 깨닫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하늘이 땅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 넘치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치우시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14,7-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8,21-35

여성제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5	249	208
봉헌	361	259	259
성체	God of Wonders	305	305
파견	343	224	339

4. 너희가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 인간 생명의 새로운 문화를 위하여

▶ 부활의 광채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면서 또한 당신 백성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하다. 마리아는 죽음과 싸우는 교
회에게 위안을 주는 살아 있는 말씀이시다. 교회는 우리에게
성자를 보여줌으로써, 그분 안에서 이미 죽음의 세력들은 패
배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죽음과 생명이 겨루어 묘한 싸움을 하더니, 죽으셨던 생명의
주, 살아서 다스리심이어!"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은, 부활의 광채 속에 당신 수난의 표시
를 간직하신 채 살아계신다. 그분 홀로 역사의 모든 사건의 주
인이다. 그분께서는 역사의 "봉인"(묵시 5,1-10 참조)을 떼
시며, 시간 안에서, 시간을 초월하여, 생명의 힘이 죽음보다 강
함을 선포하신다. 인간의 역사가 나아가는 목적지인 세세상,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례하는 백성, 생명의 백성이며 생명을 위한 백성인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에 대한 확신 속에서, "확
실한 희망과 위로의 표시"5)이신 마리아를 바라보며 나아간다.

오! 마리아! 새 세상의 빛나는 새벽이며,

살아있는 이들의 어머니시여!

생명의 모든 원리를 당신께 맡겨드리나이다.

굽어보소서. 성모여!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수많은 아기들을 굽어보소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불쌍한 이들을 굽어보소서.

무지한 폭력의 세물이 되고 이는 남녀들을 굽어보소서.

무관심이나 그릇된 자비로 죽어가고 있는

노인과 병자들을 굽어보소서.

당신 아드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과 사랑으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영원히 새로운 선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 수 있는

은총을 얻어주소서.

일생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경축하는

기쁨을 얻어주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단호하게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얻어주소서.

그리하여 선한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진리와 사랑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게 해주소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교황 재위 제17년에)

* 지난 2년반여 동안 이 칼럼에 연재해온 '생명의 복음' 문헌이 이번
주로 끝나고 다음주부터 베네딕도 16세 교황의 문헌 '주님의 말씀'
이 새로 연재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제칩니다."

용서를 하는 것만큼 용서를 구하는 것도 큰 용기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복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이 없듯이 흔들리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을 맞하지 않는 꽃처럼 지구의 자전을 맞하지 않는 나침반의 바늘처럼 아무리 세상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도 끝내 길을 잃지 않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흔들림조차 딛고 일어난 이 땅의 순교 성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복음속에 예수님은 “죄를 지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고 묻는 베드로에게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과한 듯싶지만 되짚어 보면 미움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용서 또한 끝없이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사랑만큼이나 미움은 마음의 빗장을 닫아걸어도 파고드는 바람과 같이 초대하지 않아도 슬며시 자리 잡는 불청객입니다. 초대한 것도 아닌데 한 번 마음에 들어오면 도통 나갈 줄 모르기에 용서 또한 그렇게 모질게 마음에 되새겨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움은 초대장 없이 들어오는 불청객이지만 용서는 끊임없이 초대해도 쉬이 자리 잡으려 하지 않는 낯선 손님이라는 점이겠지만 말입니다.

예전에 본당 일에 반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쁜 뜻은 아니었겠지만 기분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일은 잘 되었고 많은 이들은 그분의 선택에 보이지 않는 질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문안을 가게 되었을 때, 그분은 신부님께 죄송하다고 참 미안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동안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용서하는 것만큼 용서를 구하는 마음 또한 커다란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고 용서해 주는 것은 커다란 용기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서해 주는 것도 마음을 거슬러 흘러야 하는 것이고 보면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덕분에 그 이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미움보다는 쉬이 미움을 떨쳐 버리지 못하는 옹졸함에 대해 더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잘못하고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잘못에 돌을 던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을 감싸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가 행한 만큼 매여 있는 이유이겠지만 하느님의 정의가 참회하는 만큼 매여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세상의 정의를 하느님의 정의보다 앞세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듯이 흔들리기에 사람이요, 떨리지 않는 나침반은 더 이상 나침반일 수 없는 것처럼 미움과 용서 사이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이지만 끝내 길을 잃지 않았던 순교 성인들의 후예답게 오늘도 일흔일곱 번 흔들려도 일흔일곱 번 딛고 일어서는 우리였으면 합니다.

◆권철호 다니엘 신부 /

서울대교구 삼각지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대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권오상 바오로	이민상 사도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순길 체칠리아	이순자 비비안나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 주 전례 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전지요 글라라	박희자 마리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태영 가브리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제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전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 순교자 성월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12일(월)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두대를 봉헌합니다. 각 미사후 추석송편 나눔이 있으니 다함께 즐기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본당의 날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 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9월18일 (주일) 한국의 백삼위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신 본당은 이날을 본당의 날로 제정, 기념미사(낮 11시)와 새로 조성한 야의십자가의 길 14처를 봉헌하며 아울러 12명의 예비자들에게 새례성사를 베풁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례 바랍니다.

◆ 본당설립 30주년기념 종합예술대전 개막

- 개막 리셉션 : 오늘 주일(11일) 오후1시~3시 강당
- 전시기간 : 9월25일(주일)까지 성당 문여는 시간에 전시
- 전시작품 : 유화, 수채화, 한국화, 민화, 사진, 꽃꽂이, 서예, 자수, 알공예, 도자기, 퀼트, 시 등 그동안 백삼위 성당 교우들이 갈고 닦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대거 전시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문의 : 이명렬 라과엘 ☎(310)749-0278

◆ 백삼위 신심단체 '1인1단체 가입' 캠페인 : 단체소개

본당 각 신심단체 활성화 및 회원가입 확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일미사 후 '우리 단체에 오세요!' 소개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양업회, 요셉회, 대전회, 성모회, 자모회에 이어 이번 주일은 안나회 차례입니다. 앞으로 남은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11일 : 안나회 ▶ 25일 : 빈첸시오
- ▶ 10월2일 : 레지오 마리아 ▶ 10월9일 : 배론청년회
- ▶ 10월16일 : 성령기도회

◆ '야의 십자가의 길' 조성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당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되는 야의 십자가의 길 14처(the Way of the Cross=14 Stations of the Cross)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성모님 동산앞 넓은 잔디밭에 새로 꾸며진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오는 9월18일(주일) 본당의 날에 봉헌됩니다. 새로 심은 나무 등 조정상태가 아직은 굳어진 상황이 아니오니 조형물 주변잔디 왕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축성

- 일시 : 오늘 주일(11일) 낮 11시미사 직후 사제관앞
- 미사시작 전에 사제관앞 파킹랏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 남가주 제33차 여성 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 일정 : 9월22일(목)~25일(주일), 엘 카멜로 피정의 집
- 수강자 4명 : 금유미 크레센시아,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 스텔라, 김명재 아가다
- 봉사자:엄혜은 도로테아, 권순길 체칠리아, 김미현 크리스틴
- 수강자와 봉사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울프레아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성령쇄신대회(제24회 남가주대회) CD 판매

- 가격 : 1세트에 \$20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성령기도회회장 ☎(310)780-0369

◆ 성물부에 새로운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본당 성물부에 새로운 성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꾸르실료, 세례식 등 여러 행사에 동료 교우들과 대자 대녀들에게 적합한 선물용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으니 와서 보세요.
* 문의 : 김막달레나 ☎(310)539-3377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9월11일(주일) : 토런스 북(콩나물김치밥 \$3)
- 9월18일(주일) : '본당의 날'을 맞아 소공동체에서 전신 신자들에게 떡과 점심을 대접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오상 김옥보 김종선 박순자 송영미 윤석구 장영우 채미정 영희가보라	김광자 김 욱 김형순 박씨니 송준규 이귀분 정지숙 최태훈	김교복 김윤진 노찬술 방정복 엄지선 이근모 조소영 한장환	김기정 김 은 노천수 배태임 오신재 이명자 조준제 한창주	김대우 김정웅 민기남 서성용 오일순 이상식 이은록 조화숙 황학수	김선제 김종렬 박상준 석순영 우영희 이은록 지경수 의 명	김성일 김종문 박선희 송기철 유경자 이인두 차병용
성전헌금	권오상 김옥보 노천수 엄지선 장영우 한장환	김광자 김 욱 민기남 유경자 정지숙 한창주	김교복 김윤진 박선희 이귀분 조준제 익 명	김기정 김 은 박선희 이근모 조화숙 영희가보라	김대우 김종문 방정복 이명자 차병용	김선제 김형순 서성용 이상식 이은록 최태훈	김성일 노찬술 석순영 이은록 최태훈
* 교무금/성전헌금에 후시 이름이 누락된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합계 : \$5,085							
합계 : \$3,493.28							
감사헌금 : 유지숙, 서정진							

미사헌금 : \$2,386

2차헌금 : \$1,076

공지사항

◆ 주일학교 오픈하우스 및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도의 밤
새학기를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과 주일
학교 오픈하우스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못오실 경우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성인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꼭 참석해주세요.

- 일시 : 9월23일(금) 오후 7시
- 준비물 : 목주, 성경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새학기 등록 접수 중 ◆

◆ 주일학교

- 등록비 : 첫째 \$120, 둘째 \$80, 셋째 \$60, 넷째 수업료 없음
- 2차접수 : 오늘 주일(11일)까지
- 자모회비 : 한가정당 \$40

◆ 백삼위 한국학교

- 등록일자 : 오늘 주일(11일)까지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수업시작 : 9월11일(주일) 낮 12시~오후 3시
- 대상 : K~12, SAT II
- 문의 : 김본경 올리아 한국학교장 ☎(310)713~2669

남가주 소식

◆ 연극 '바보 추기경' 공연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의 삶을 표현한 연극 '바보
추기경'이 FIAT재단 주최로 LA와 OC에서 두차례 공연을 갖
습니다. 한국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연극 '바보 추기경'은
평범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바보'가 될 수 있다는 증거
이자 '바보로서의 삶'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될 것입니다.

- LA 공연 : 오늘 주일(주일) 오후 4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
2040 Artesia Bl. 토런스 (310)324-8159
- 티켓 : 예매시 \$30, 당일\$40

◆ "말씀의 초막절" 축제에 초대합니다.

- 일시 : 9월11일(주일)~18일(주일)
- 개회미사 : 11일 오후 4시, 주례사제 배기현 신부
- 폐막미사 : 18일 오후 4시
- 장소 : 미주 성서모임 센터(부에나파, ☎714-521-1345)

◆ 장애인 장비이용 관련 세미나

- 일시 : 9월17일(토) 오후 5시
- 장소 : LA한인회관 강당(981 S. Western Av. LA)
- 주관 : 남가주 한인 가톨릭장애인 복지회
- 문의 : 노장오 요셉 회장 ☎(323)732-0192

◆ 성 골롬반 청소년 선교회원 모집

- 대상 : 9~10학년 재학중인 고등학생
- 오리엔테이션 : 9월18일(주일) 오후 4시
LA 성 아그네스 성당 한인회관, * 지도 : 최용훈 신부
- 문의 : ☎(323)734-4946

노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장정진 베로니카 김명재 아가다 박은혜 클라우디아 이희경 크리스티나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혜경 올리아나 920-5153	이순자 비비안나 834-8856 9/2(금)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화 안나 325-3888 9/10(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9/9(금)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진영태 요한 970-2037 9/18(주일) 오후 4시30분 델손파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박명순 안나 720-2876 9/16(금) 오전 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최경숙 수잔나 320-0855	송루카 송바로로 320-0855 9/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김경수 헬레나 634-6923 9/8(목) 오전 11시 성당
	3	김희연 루시아 213-458-3356	송미카엘 540-9032 9/1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권오상 바로로 257-8416 9/9(금)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유명련 마리아 985-2882	박진수 스테파노 710-8078 9/10(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944-2737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은주 새실리아 377-6328 9/9(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544-9460 9/9(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9/9(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귀란 아베스 617-3568 9/13(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재단체 모임의 날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기도의 힘

어느 해 겨울, 영육으로 지쳐서 배티성지로 8일 피정을 떠났습니다. 피정을 시작한 다음 날, 아침부터 눈이 펄펄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을 길을 하얗게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소나무 숲을 하얗게 하고 40분쯤 지나니까 주변의 큰 산들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내리기 전과 눈이 내린 후의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는 그 눈들이 마치 먼지처럼 힘이 없어 보였는데 그 눈들이 쌓이니까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구나!”

내가 하는 기도, 어느 때는 먼지처럼 하는 기도도 많습니다. 졸면서 기도하고, 분심하면서 기도하고, 묵주기도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런 먼지 같은 기도도 쌓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현대 곳곳에 발현하셔서 우리들에게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또 기도하여라” 하고 호소하시는 심정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저도 하늘을 매울 만큼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과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을 하얗게 덮어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매울 만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의 욕심이 생겼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가톨릭 기도서의 호칭기도 다섯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예수 성심 호칭기도, 성모 호칭기도, 성 요셉 호칭기도, 103위 성인 호칭기도, 성인 호칭기도를 매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제가 늘 해오던 기도들도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또 하려니 시간도 없고 부담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프린트하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에, 차 안에서, 자투리 시간에 꺼내어 들고 눈으로 줄줄 읽는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무척 길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14년째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

도들이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고, 염경기도이지만 관상 기도로 이어지는 체험도 합니다. 특별히 103위 성인들의 이름을 부를 때면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름들이 지금은 정겹고, 천상에 계신 그분들과 친하게 되어 성인의 통공의 힘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이 되면 103위 성인들을 한 분씩 생활 속에서 만나기 위해 매일 한 분씩 정해 놓고 103위 성인전을 읽고 그분의 일상생활과 순교하실 때의 상황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인들을 만날 때면 외국의 성인들보다 더 큰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옛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보다는 덜하셨을 텐데 그분들은 자기 자신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셨고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셨습니다. 하느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셨던 우리 선조 103위 성인들은 제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시고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김경희 루치아 수녀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그대들이 우리를 낮으로
죄다 베어 낼 때마다 우리는 더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 테르툴리아누스 <호교론> -

위령기도(한가위)

+ 지극히 어지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아무)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 (아무)가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아무)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